

# 인생은 기회다?!

만족의 기대를 극대화 할 절대예감.  
이제까지도 만족하셨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기에-.

2005년 6월  
헤인이 변화를 몰고 옵니다.



## CAT 305.5

\* 출시정보에 대한 사항은 각 지점 및 영업소로 문의바랍니다.  
2005 한국건설기계대전(CONEX KOREA)에 출품 예정입니다.

www.haein.com

2005 | SPRING |

# 헤인



당신의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고마움, 그리움, 그리고 간절한 마음...  
사람의 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일하는 손, 나누는 손, 화해하는 손,  
손에 손 잡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헤인의 봄.  
손이야기로 시작합니다.

## Special Theme Human Body ; Hand

03 프롤로그 | 04 테마 이야기 | 06 인생은 손끝을 타고 | 09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테마 사전  
10 헤인 동서남북 | 14 高客古客 | 16 Here is Haein | 18 업계는 지금 | 22 최고의 엔진  
24 헤인 뉴스 | 26 독자 나눔터 | 24 생활의 발견

표지 설명 : ELG Korea 의왕 현장에서 서울경기본부 CAT산업장비영업팀 강한승(왼쪽) 과장과 황희성 기사

2005년 봄호(통권 247호) | 2005년 3월 31일 발행 |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 바-2006호) |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ww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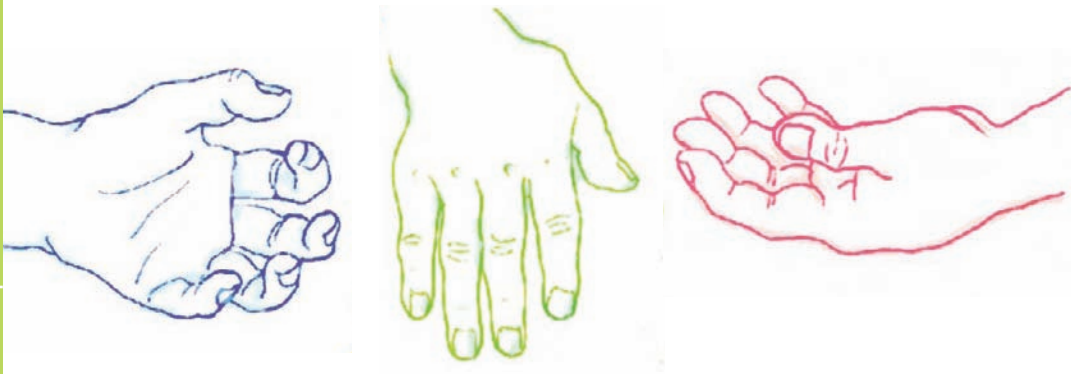
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 기획 및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02-3447-7601) |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 손



투박하지만 듬직한 아버지의 손, 세상 어느 것보다 따뜻한 어머니의 손, 그리고 막 세상과 첫 만남을 시작한 아기의 손 등 우리의 손은 말 그대로인 '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때로는 어떤 이의 직업과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생을 보여주기도 하며 절절한 진심을 대변하기도 한다.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진실과 가치를 지닌 인생을 닮아있다.

## 세상을 읽는 수(手), 손의 재발견



### 그 안의 참 많은 이야기

사람의 손은 참으로 많은 일을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식사할 때 음식을 나르는 손에는 생존욕망이 담겨있고, 한쪽 무릎을 굽힌 채 여인에게 꽃다발을 바치는 젊은 남자의 손에는 간절함이 있으며, 화가 나서 내지르는 주먹에는 분노가 들어있다.

뿐만아. 손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민 까닭에 신분이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상술(手相術)을 통해 사람의 운명을 점쳐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지닌 삶의 거울인 셈이다. 구약성서 <욥기> 37장에 '신은 사람의 손에 부호를 새겨 주었으니 이것에 의하여 직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이스라엘 솔로몬 국왕과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상을 신봉하여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의 수상술은 단지 손금만이 아닌 손의 형태나 혈색 따위를 포함한 총체적 조사연구를 뜻한다.

하지만 손금으로 미래 운명을 점치는 행위는 미신에 가깝다. 왜냐하면 수상술의 핵심은 살면서 변화된 여러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므로 과거를 약간 짐작할 수는 있을지라도 미래와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문명을 자랑하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손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손의 상징이 워낙 강한 데 있다.

### 역사를 바꾼 수(手)

기원전 1015년의 일이다. 해적 두목 두 명이 북아일랜드 해안지방을 두고 경쟁하였는데, 어느 쪽이든 세 영토에 먼저 손이 닿는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하기로 약속했다. 그에 따라 두 배가 동시 출발했고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였다. 뒤쳐져가던 배에 탄 해적 두목이 자기 오른손을 칼로 자른 다음 해안으로 던졌다. 그 결과 피가 똑똑 떨어지는 손목이 경쟁 해적 두목의 손보다 한 순간 앞질러 육지에 닿았다. 이렇게 하여 승자 헤레몬 오네일은 당당히 북아일랜드 얼스타 지방에 오네일 왕조 초대 국왕으로 등극했고, 가문 상징 문장(紋章)에 오른손을 그려 넣어 역사적 승리를 길이길이 기념했다. 오네일이 손의 희생을 통해 역사를 바꾸었다면, 세르반테스는 희생된 손을 기념하고자 새로운 유형의 소설을 썼다. 16~17세기 에스파냐에서 활약한 세르반테스는 1571년 레판토해전에서 부상당해 왼손이 불구가 됐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살리고자 훗날 엉뚱하면서 행동이 앞서서 <돈키호테>를 창작함으로써 실천적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세르반테스에게 왼손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추억이었던 것이다.

### 손, 쓸수록 빛난다

손은 아끼지 않고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 인류 문명을 살찌운 손들은 한결같이 만들거나 쓰거나 그리는 등 일을 했다. 프랑스 곤충학자 파브르가 아비뇽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당시 문무장관이 학술잡지에 발표된 파브르의 연구논문을 읽고 감동한 나머지 파브르를 방문했다. 장관은 실험실에 들어서자마자 파브르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실험실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파브르는 실험실 자금 지원보다는 더러운 손과 악수해주면 만족한다고 말했다. 실험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는 완곡한 표현이었는데, 장관은 그 말에 감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손은 (더럽게 보이지만) 펜도 쥐고, 현미경도 쥐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대단히 고마운) 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상징적 노력 이외에 실제로 손은 남을 위해 사용할 때 놀라운 에너지를 내뿜기도 한다. 배 아플 때 살살 문질러주는 이른바 '약손'이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약손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손에 관련한 접촉의 상징을 빼놓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보거나 듣는 것보다 손으로 만질 때 더 사실감 있게 느끼는 까닭이다. '열 사람의 입이 보충해도 두 눈이 보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두 눈이 보아도 한 손으로 만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타이 속담은 그런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때 온정이 담겨있다면 그 손은 단순한 체감을 넘어서 마음에 울림을 준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처음 잡을 때 느끼는 찌릿함은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만족감에 다름 아니며, 위험한 곳에서 잡아 이끌어주는 손에는 거룩한 희생이 들어있으니 말이다.

내가 내미는 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글. 박영수 문화칼럼니스트 (www.feelingbox.co.kr)

동서양 역사문화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에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당황하는 지구촌 문화여행>, <103가지 어린이이야기> 등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작년 말 타계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다. 이 시를 읽으면 그가 하는 리사이클 아트가 무엇인지 어렵잖아 짐작할 수 있다. 한낱 검은 연기를 피우며 사라져갈 쓰레기 더미에서 그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예술이다.

## 버려짐으로써 다 시 시작 한 다 리사이클 아티스트 김동환



지인의 작업을 도와줄 요량으로 강원도로 향했던 그때, 춘삼월의 꽃샘추위는 영동지역에 많은 눈을 뿌렸다. 작업은 끝났지만 사나흘을 눈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에게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일인 동시에 예술이며 곧 사는 재미라고 한다. 북촌 마을 가운데 하나인 계동 골목길은 단층 건물들이 서로 빼곡히 마주서 있고, 옛날 문방구도 있으며, 낡은 공중전화기도 있고, 허름한 참기름 찌는 집도 있다. “기자 양반이 또 온 거야~.” 하며 눈이 마주친 옆집 식당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는다. 옆집에서 음료수도 얻어다 준다. 정말 서울 한복판이 맞나 싶은 이곳에 ‘play GROUND’ 라는 간판을 내건 김동환의 작업실이 있다.

### 손이 하고 싶은 열정을 따라

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다. 한낱한시에 태어났지만 성격은 참 달랐다. 학교 운동장에 가더라도 동생은 철봉에 매달리고, 공을 차며 놀았지만 내성적인 그는 흙장난을 좋아하고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여느 아이들처럼 장난감 조립도 곧잘 했죠. 무엇보다 제가 그린 그림을 보며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해주는 것이 기뻐했던 거 같아요. 그게 저의 강한 성취욕구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그저 미술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디자인학원을 다니며 의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재봉틀도 배웠다. 학원을 나와 유명 의류업체 디자인팀에 근무했지만 얼마 못 가 그만 두었다.

“좋은 회사였는데 직장 생활이 저에게 맞지 않은 건지...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곳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유행이라는 어찌할 수 없는 큰 틀 안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게 싫었죠.”

얌전하고 내성적이지만 끊임없는 작업에 쉴 날도 손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다. 타고난 손재주로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지닌 두 손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며 굵히고 데인 상처뿐인 손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 현수막, 그 버려짐의 시작에 대하여

버리는 것에만 우리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일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한 재료(신문지, 박스, 현수막)임에도 내가 만든 공예품에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낯설어 한다.

- 김동환의 홈페이지([www.d-hwan.com](http://www.d-hwan.com))에서

‘낯설게 하기’란 말이 있다. 예술이란 어쩌면 이 말 하나로 다 설명되는 아주 단순한 것인지도 모른다. 듣고 나면 쉬운 것, 알고 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 그것이 예술이다. 하지만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누가 처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문 제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김동환은 예술을 온몸으로 깨우친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가 본 것뿐이다. 그리고 그가 리사이클 아트라는 이름을 붙여 시작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이다.

“리사이클 아트를 하니까 모두들 제가 대단한 환경론자인 줄 알아요. 사실 분리수거 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1.5톤 트럭에 한가득 실린 폐현수막을 보니 이견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론자도 아니고 환경개선에 나서보겠다는 것도 더더욱 아니란다. 그냥 우연히 버려진 현수막을 보고 가방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던 것이고, 버려진 소파를 보고 필통을, 쓸모없어진 유리병으로 스노우볼을, 슈퍼마켓에서 나온 박스로 액자를 만들었다. 그제 전부지만, 현수막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다. 현수막을 만드는 곳에도 가봤고, 어떤 재질로 만드는지, 쓰레기로 소각되는 양이 얼마며, 이를 방지하는 구청의 잘잘못까지. 옛말에 발묵(發墨)을 다하면 저절로 묵향(墨香)이 난다고 했다. 그는 부정 하지만 손으로 직접 쓰레기 더미들을 헤집으며 누구보다 더 자연스럽게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 생각해보면 참 많은 리사이클 아트

“리사이클 아트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크 아 트나 리폼 등의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죠. 혹시 텔 레비전에서 병뚜껑으로 모빌을 만들거나 각종 고 철로 로봇을 만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기인이다 신기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모두 리사이클 아트라고 할 수 있죠.”



정크 아트가 전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리사이클 아트는 실생활에 가까운 생활예술인 것이 다. 재활용으로 만든 상품들을 홍대 앞 예술시장 프리마켓에 나가 판매하던 중 2004년 서울시와 아름다운 가게에서 주최한 ‘리사이클 아트 상품 공모전’ 소식을 듣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출품해 1등으로 선정되었 다. 그 덕에 올해는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운이 좋았다고 말은 하지만 오랜 시간 준비된 그의 아이디어 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요즘 그는 자신을 리사이클 하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 운영했던 가게는 잠시 내부 수리중이다. 원체 느긋 한 성격이라 언제 마무리될는지 모르지만 그는 말한다.

“지금은 소위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언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지 모르죠. 하지만 언제나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예술을 꾸준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글과 사진. PAS(help@i-pas.net)



같은 눈이라도 사람의 눈이 있고,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듯 같은 손이라도 그 뜻은 각양각색이다. 모름지기 같은 말이라도 그 뜻을 알고 써야 맛이 배가 되는 법. 모르면 싱겁고, 알면 더 재미난 ‘손’에 관한 키워드를 모았다.

## 다 있고 다 없는 손 이야기

**따로 또 같은 ‘손’** ● ● ● ● ● 가장 원초적으로 사람의 신체 기관 가운데 하나인 손에서부터 자손을 나타내는 손, 흔히 ‘누군가와 손을 잡았다’는 관계를 나타내는 손과 ‘너의 손에 달렸다’는 말에서 비롯된 기술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손 외에도 ‘손이 크다’의 씹셈이, ‘손을 쓰다’의 조치, ‘많은 손이 필요하다’와 같은 노동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뿐인가. ‘손을 거치다’에서는 과정, ‘손을 넘기다’에서는 시기, ‘손을 뻗치다’에서는 세력을 의미하는 등 그 의미가 천태만상이다. 우리가 아는 손이 얼마나 작은가.

**그대 고운 섬섬옥수 纖纖玉手** ● 한자 그대로 가늘고 섬세함이 두 번이나 반복될 만큼 곱고 여린 옥 같은 손. 옛 날에는 미인을 뽑을 때 기준이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였으나, 보통은 여자의 가냘프고 고운 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왼손잡이에 관한 몇 가지 진실** ● 인구의 90%는 오른손잡이, 일부 양손잡이를 포함한 1%인 왼손잡이는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자가 바로 산(?) 증인. 또한 믿거나 말거나 많은 천재와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들이 왼손잡이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손이 없는 날?** ● ● ● ● ● 이때의 손이란 바로 귀신. 예로부터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귀신이 있었으니, 이 귀신을 피해야만 액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음력 1~8일, 11~18일, 21~28일 등이 방향에 관계없이 손 없는 날이라 하여 이사를 하거나 큰일을 치르는데 단골로 꼽히고 있다.

**핸드 메이드(Hand Made)** ● ● 그 유래는 길지 않으나 현대에 와서 가장 심금(?)을 울리는 단어. 편하고 빠른 것만을 좇다보니, 손이 하는 일은 기계와 더 친하게 되었고 컴퓨터로 쓴 글씨, 기계로 만든 옷, 가공된 음식 등이 범람한다. 수공품을 의미하는 핸드 메이드는 이런 시대에 빚대어 역으로 사람의 손길이 고스란히 배인 수제품을 귀하게 여겨 만들어진 말.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따뜻한 장인의 숨결이 담겼다는 핸드 메이드. 정녕 현대인들은 사람 내음을 그리워한다.



1



2



3

1. 추암해수욕장의 썰대바위 2. 동화기업 이인현 대표 ●  
3. 국내에서는 귀한 78년식 920 장비 ●

## 푸른 동해의 넉넉한 정(情), (주)해인과 동화기업

남한산성의 정동쪽에 자리한 추암. 우리나라 최고의 일출로 꼽힐 만큼, 탁 트인 전경에 이글대는 태양이 그 어떤 곳보다 밝은 희망과 뜨거운 열정을 품게 한다. 추암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주)해인과 동화기업 역시 시원시원하고 자신감 넘치는 보폭이 넉넉한 동해와 추암 일출의 열정을 꼭 닮아 있었다.

### (주)해인, 위풍당당한 규모와 서비스로 동해를 사로잡다

해오름의 고장,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동해.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일상에 찌들었던 마음이 넓게 트이는 것 같다. 동해에 도착해 이런 풍광을 닮듯 시원스런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주)해인 동해지점을 먼저 만났다.

백두대간을 뒤에 두고, 푸른 동해를 바라보고 선 동해지점의 초현대식 사무실은 특히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자부심을 더해줬는데, 77년 처음 개설된 후 97년 신사옥을 준공하면서 오늘날의 면모를 갖췄다고 한다. 규모에 걸맞게 거래 업체들 또한 규모가 큰 편이어서, 쌍용양회를 비롯한 라파즈한라, 동양시멘트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업체들이 많다. 때문에 다른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100톤급의 광산용 휠로더와 트럭을 보유한 거래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동해지점만의 특색이자 장점. 뿐만 아니라 8명의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총 500평 규모의 사무실 한쪽에는 부품창고를 두고 5천 가지에 달하는 부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업계 특성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 부품 수급 요청이 잦습니다. 장비가 고장 나면 곧 생산과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객이 찾을 때는 빨리 공급해 드려야 하죠. 직원들에게도 늘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팀워크를 강조하며 고객 가치가 최우선임을 강조합니다.”

동해지점 이회우 지점장의 말이다. 강원도 고성부터, 속초, 강릉, 양양, 진부, 동해 삼척, 태백, 울진, 정선을 아우르는 넓은 영업 권역과 거래 업체만도 2백여 개가 넘는 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고객 만족을 끌어내는 비법은 여기 있었던 것이다. 이런 동해지점의 면모는 거래처를 돌아보는 가운데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륜 깊은 우리나라 제일의 철강 원료소, 동화기업

동해지점의 거래처 가운데 하나인 동화기업은 여러 모로 특색을 갖는다. 우리나라 제일의 철강 원료소라는 점과,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78년식 캐터필러 휠로더 920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규모있는 거래처들과 달리 개인 업체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인현 대표가 동화기업을 설립한 것은 98년. 만 7년,



홍훈한 정이 느끼는  
장건우 소장(왼쪽)과 이인현 대표

햇수로만 8년째 접어든다. 20여 년 동안 몸담고 있던 전 직장까지 이 바닥에서 30여 년의 삶을 꾸려온 이 대표의 연륜까지 없다면 동화기업은 역사로나 실력로나 단연 최고가 아닐 수 없다. 주 업종은 동부한농의 제품 원료와 출하 제품을 포함한 모든 운반, 수송책, 철강 주원료를 수송하여 작은 자동차 생산 업체부터 포스코나 기아특수강, 현대철강, 동국제강 등 전국 각 지역에 보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용 벌크 출하도 동화기업의 몫이다. 이렇듯 넓은 권역의 수송책을 담당하는 데다, 고가에 다양한 제품군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꼼꼼함이나 노련함은 기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수출되는 제품은 보통 동해항에서 물류가 출발하게 되는데, 각 선박마다 항만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도 기간 내 물건을 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자연 야간작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품에 마모나 훼손이 생기기도 하고, 장비가 풀가동하게 되니 고장도 잦게 된단다. 게다가 철강 물류가 대부분 무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장 빈도





한창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캐터필라 936E

나 정도는 더 심하게 된다. 동화기업이 캐터필라 장비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인현 대표의 남다른 캐터필라 장비 사랑

현재 동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라 장비는 총 4대. 920과 936E, 950F, 966G가 그것이다. 전 직장으로부터 캐터필라 장비를 써 왔던 터라, 자연히 해인과 인연을 맺었고, 동화 기업의 성장세와 함께 장비 수도 하나 둘 늘어갔다.

“꼭 캐터필라 장비를 써 왔고, 앞으로도 고집할 생각이에요. 캐터필라 장비는 작업할 때 순발력과 힘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파워가 최고죠. 고장도 별로 없는 데다 수리발도 잘 받으니 잔고장이 잦은 이 업종에서는 캐터필라 장비가 맞춥니다.”

지게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가 캐터필라 장비일 만큼, 캐터필라 장비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이인현 대표.

“고장이 잦고, 특히 성수기 고장은 심각하기 때문에

장비 서비스가 관건입니다. 늘 부품 수급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기적인 관리도 잊지 않죠.”

동화기업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상 주임의 말이다. 무엇보다 장비 고장 시 부품을 교체할 경우는 김동현 대리과 박찬표 대리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장용상 주임과 양희준 주임이 서포터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발빠르게 응대하고 있었다. 동화기업의 경우 이 대표의 장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920 모델에 대한 애정은 유독 남달랐다. 작고 낮은 모습이 어찌지 전시 모델이 아닐까란 인상을 주지만, 이 대표의 설명을 듣다보면 천만의 말씀. 작년에 모든 수리를 완벽하게 마쳐,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신통한 녀석이란단다. 공장 안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는 눈을 치우기도 하고, 다른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대체 장비로 쓰이는데, 무엇보다 920 장비가 78년식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한 오랜 친구와 닮았다고 하니 그 마음이 수급이 간다. 당시 미국에서 직접 공수 받은 것으

로, 지금은 국내에 거의 없는 장비인데다 동부한농 사옥 공사도 담당한 920 장비는 작아도 순발력이 뛰어나 앞으로 많은 활약을 하게 될 거란다.

#### 오래 오래 깊은 정을 나누며 뜻을 이루자

작년 14만 톤에 이어 동화기업의 올 생산량은 16만 톤. 현재 공장이 증설 중이고 6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장비도 추가로 구입할 계획에 있다. 한때 IMF를 거치며 혹독하고 힘든 시련을 겪긴 했으나, 꾸준함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화기업. 이인현 대표는 그 숨은 공로를 직원들에게 돌린다. 총 17명의 직원들이 업계 특성상 명절도 없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현장에서 불평 없이 성실하게 협조를 해주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는 해인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족 같이, 늘 긴밀히 협조해 주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해인과는 워낙 오래 되어서 협조가 아주 원만합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결해주죠. 2003년 장비를 구입하면서 인연을 맺은 장건우 소장은 엄청난 일꾼이고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장비를 구입할 때 꼼꼼하게 챙겨주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향후 장비 구입도 장 소장이 잘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늘 맥을 짚어주시고 끄는 게 확실한 분이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비에 관한 실력도 연륜도 남다른 시거든요. 사실 아버지 연배서서, 인생 선배로서 세상 살이에 대한 조언도 자주 해주십니다. 참 따뜻하고 고마운 분이세요.”

이인현 대표와 장건우 소장의 주고받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자니, 깊은 정이 배어나고 마주 잡은 손이 더욱 훈훈하게 느껴진다.

동해에서 만난 해인과 거래처의 모습에서는 고객들의 믿음으로, 또 따뜻한 정으로 더욱 든든한 해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고객과 업체를 넘어선 협조와 정 또한 앞으로도 충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글. 임춘재, 사진. 이승혁

## Tip

### 동해에 가면



(주)해인 동해지점이 위치한 동해시는 유독 해오름 명소가 많다. 그 중 인근에 우리나라 해오름 명소의 제일로 꼽히는 추암 해수욕장이 자리하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 조정 시 애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출 촬영 장소로 유명한 추암해수욕장은 바다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촛대바위가 빼어난 장관을 만들어 내며, 아담한 어촌 마을이 주는 여유가 넉넉하다. 또한 인근에 추암 해금강, 삼척·양양 해수욕장, 죽서루, 천곡동굴, 무릉계곡 등 다양한 명소가 산재해 있고, 동해안 제1의 무역항이었다가 지금은 최고의 어항으로 유명한 묵호항도 볼거리이다. 인근 삼척의 다양한 동굴들도 꼭 둘러볼 만한 명소.

### 바다처럼 시원하게 풀리는 속, 곰치국



동해의 제일미라면 단연 오징어. 때문에 오징어회와 물회를 한다는 입간판을 통해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해에 가면 꼭 맛볼 별미가 있으니 바로 곰치국이다. 곰치 살이 부드럽고 국물이 시원해 뱃사람들의 아침 해장으로 인기가 높은 곰치국은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깔깔한 아침 속은 물론, 평한 바다 바람 바다 내음처럼 답답한 마음도 시원히 풀어준다.



##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트너십, 동방토목공사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동방토목공사 한상옥 사장을 만나본다면 이런 말은 무색해진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하고, 일단 마음이 서면 지고지순하달 정도로篤심 있게 지켜가는 모습이 진짜 사나이다. 한상옥 사장과 헤인의 만남도 한 치의 군더더기 없는 믿음으로 설명이 된다.



● 동방토목공사 한상옥 사장(왼쪽)과 남부영업소 이재선 소장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인접한 천안산업협동화단지 TFT-LCD 공장 부지. 두 대의 캐터필라 325CL 굴삭기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작업에 한창 열중해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해발 100m 지역을 80m로 내리는, 총 면적 1만5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조도가 시원한 현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곳곳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들.

“토목 공사에서 관건은 민원과 암 작업입니다. 특히 돌 처리가 까다로운데, 캐터필라 장비 덕분에 별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못 따라옵니다.”

동방토목공사 한상옥 사장의 말이다.

### 최고의 장비이기에 믿음이 가는 (주)헤인

한상옥 사장이 동방토목공사를 창립한 것은 1979년. 이 후 공장 부지나 택지 조성을 주종으로 하며, 장비 운송업 등 토목에 관한 다양한 업종을 병행하고 있다. 토목으로 상통하는 다양한 사업 영역이 말해 주듯, 햇수로만 26년이 되는 지금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토목의 최고 터줏대감이다. 시원하고 화통한 일처리, 사업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장인 정신에 비견할 만하다.

“원래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장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캐터필라도 그렇고요. 헤인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장비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고객과 업체를 뛰어넘는, 하심탄회한 막역지우

현재 동방토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5대. 캐터필라 325CL 굴삭기 4대와 330CL 굴삭기 1대가 그것이다. 토목 공사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4월부터는 신장비를 5~6대 더 추가 구매할 예정이며, 장비 효율화를 위해 Attachment도 구입할 생각이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상옥 사장은 타 브랜드의 매니아였다. 그것이 불과 일 년 전. 그 업체와



A/S 문제로 작은 충돌이 있으면서, 모든 장비를 캐터필라 장비로 교체했다. 장비에 관한 한 영업 직원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에 고민 없는 선택이었다.

“박사세요. 장비는 물론, 다방면에 해박하시거든요. 저도 많이 배우죠. 연초에는 천안에서 헤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비와 영업에 대한 강의도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박식하시니까 좋으면서도 어떤 때에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남부영업소 이재선 소장의 말이다. 이 소장의 말처럼 장비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 의형제의 우정을 가늠케 한다.



### 배우고, 나누며 함께 성장한다

“임대업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현장에 무상으로 임대해 준 후, 대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워킹 테스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마케팅 전략이 탁월하고, 캐터필라 장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죠. 특히 견고성이 뛰어나고, 동작이 빨라 국산 장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325CL 굴삭기에 대한 자부심이 큼니다. 동종, 동급 장비에 비해 수익성이 높거든요. 국내 토목 업체들도 임대 요청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제가 광고책임자입니다. 하하~.”

마케팅 당시 로드쇼를 준비할 때 남부영업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잊지 않는다는 한상옥 사장. 1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체계적인 A/S 시스템을 칭찬하면서도, 영업에서의 문제를 바로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본사에 전문 요원을 상주시켜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조언한다. 과연 헤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두터운 믿음을 구축한 동방토목공사와 헤인의 모습은 과연 사람과 사람, 업체와 업체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었다.

글. 임춘재, 사진. 이승혁





1. 서울경기본부 CAT산업장비영업팀 강한승 과장과 황희성 기사  
2. 본사에서 만난 ELG Korea Scott Goring과 김연휘 과장

## 헤인과 ELG Korea, 내일을 향해 날다!

2005년 발렌타인데이를 하루 앞 둔 지난 3월 13일은 헤인과 ELG Korea(ELG Korea Corp.)에게 남다른 날이었다. 1962년 독일에서 창립되어 현재 영국과 미국, 일본에 법인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철 스크랩 업체인 ELG Korea에 투입된 캐터필라 325CL 장비가 첫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LG Korea 의왕 현장에서 확인한 캐터필라 325CL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고, ELG Korea는 물론 헤인의 밝은 앞날을 예고했다.

### 이것이 헤인

“본격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처음 가동 성능이 아주 우수해 매우 만족합니다. 기사 역시 조작이 수월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기대치만큼 앞으로의 진행 사항도 순탄할 것 같습니다.”

ELG Korea의 Scott Goring의 말이다.

“에이전트를 통해 헤인을 소개받을 당시 성능은 이미 대중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서 큰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장비와 부품 구비력이나 정비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죠. 타 업체와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장비를 구매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어 렌탈서비스를 통해 임대하게 되었을 때 실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성능과 시스템에 후한 점수를 주며 향후 더욱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ELG Korea 김연휘 과장. 임대 장비를 통해 얻은 만족감 때문인지 캐터필라 장비를 구입하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다. 직접 장비를 조작한 5년차 경력의 베테랑 황희성 기사 역시 국산 장비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작업 효율 또한 높아 캐터필라 장비의 유명세를 실감했다고 말한다.

### 철 스크랩 캐터필라 325CL, 가능성을 열다

ELG Korea의 이런 고무적인 반응은 헤인에게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건설 현장이나 시멘트, 석산이 주종을 이루는 헤인의 주력판매 시장에서 ELG Korea는 최초의 철 스크랩 업체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교두보이자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특히 국내에 포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 스크랩 업체들이 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규모 있는 세계적인 업체의 인정은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ELG Korea에 렌탈된 325CL 장비는 스탠다드 굴삭기에 Grapple을 장착하여 철 스크랩 현장에 활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이다.



Work Tool을 장착하여 활용 방안이 다양해진다면 그만큼 판매 영역 또한 넓어지기 때문이다.

첫 가동에서 고객의 기대치를 확실하게 충족시킴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헤인의 시장 다각화 노력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시도들에도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 CAT산업장비영업팀의 선공격, 임대영업팀의 후지원

하지만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또다른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바로 CAT산업장비영업팀의 적극적인 영업과 임대영업팀의 차별화된 렌탈서비스. 시장 영역의 다변화를 위해 작년에 신설된 CAT산업장비영업팀은 작년보다 한층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에 주력함으로써 ELG Korea의 요구를 수렴, 무난한 수주를 끌어냈다. 이렇듯 CAT산업장비영업팀이 새로운 시장의 포문을 열었다면, 임대영업팀의 산업체를 겨냥한 맞춤형 임대 프로그램은 든든한 수비수이자 지원군. 2003년부터 주고객인 골재, 석산, 레미콘업체는 물론 일반 건설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비를 임대하며 탄탄하게 자리 매김하면서 최고의 장비, 양질의 기사 그리고 체계적인 Product Support를 바탕으로 100% 만족에 가까운 서비스로 고객의 만족을 상승세로 이어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포스코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ELG Korea. 그리고 ELG Korea를 시작으로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한 장비 활용 루트를 발굴해 나갈 헤인. 이제 시작에 불과한 지금의 성과를 보더라도, 두 업체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결코 기대만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글. 임춘재, 사진. 이승혁



# 교토의정서,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 바람이 전 세계에 거세게 불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2월 16일 발효됨에 따라 기준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하면 해당 국가는 생산 활동을 줄여야 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 파란만장 교토의정서, 러시아의 참여로 본격화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sup>1</sup>에서는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sup>2</sup>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협약 당사국들이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2% 줄이자는 것이 교토의정서의 핵심 내용. 현재 비준국은 한국을 포함해 141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의 61.6%를 차지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1년 거부하면서 발효가 지연돼왔다. 그러다 이산화탄소 배출 3위인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협약이 본격화됐다.

러시아 비준은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비준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국 중국 일본 EU 캐나다 등 모두 120여 개국이 비준해 국가수는 확보됐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55%)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지난해 말 가세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비로소 55% 기준을 넘어 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약 발효가 가능해 러시아 비준은 세계 환경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 1979년 기후 변화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를 통해 기후 변화는 전 세계의 공동 사안으로 떠올랐다. 그 후 1988년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유엔환경계획)이 기후 변화에 의한 정부간 패널인 IPCC를 조직하고, 1992년 리우자구환경선언에서 154개국이 모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다. 효력은 50개의 조인국에 의해 1994년부터 발생하였고, 181개국의 당사국들이 모여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있다.

2. 온실가스란 대기 속에서 온실의 유리처럼 열을 가둬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를 말한다.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CO<sub>2</sub>)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한다.



## 무엇이 달라질까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38개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간에 배출 권터를 사고파는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가 실시된다. 기술 개발이나 에너지 사용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면 그만큼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것. 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도 넘겨받지 못하면 공장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적잖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의 국제 거래 가격은 유럽연합(EU)의 경우 2004년 말 현재 이산화탄소 1톤당 26달러 정도, 거래시장 규모가 시행초기 대략 100억 달러(약 10조 원)를 쉽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4%를 차지하는 미국이 계속 가입을 거부하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3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당장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토의정서 외는 별도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등 자체 정책과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토의정서 참여에는 계속 거부 의사를 보이고 있어 외교적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 세계 각국의 반응

교토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은 지난 달부터 25개 회원국들의 발전소 정유사 제철소 시멘트 유리 벽돌 종이공장 1만2천 여 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각 회원국도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정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자신들에



유리한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치열한 로비를 하고 있다. 또 법률 회계 투자회사 등 관련 업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둘러싼 새로운 사업영역의 등장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런던을 국제배출권 거래센터로 육성한다는 플랜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해 6% 줄여야 한다. 하지만 2003년도 기준으로는 1990년도 보다 오히려 8%나 증가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난 8%에 더해 모두 14%를 줄여야 하는 셈. 일본 정부는 우선 차량의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전자제품에도 전력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시스템 마련에 분주하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 삭감 대책을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트럭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배송 등 물류를 효율화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기업들이 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하면 정부 보조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행보도 주목거리다. 중국은 기후 변화 문제의 위협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후진국들에게 의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다. 아직 공업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받아들이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개발도상국 그룹의 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 하지만 중국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효율, 환경문제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능력 범위에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25~2030년에는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국내 산업계도 비상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교토의정서 의무 대상국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한국과 멕시코 등에도 선진국처럼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1차 시행기(2008~2012년)에서는 빠졌지만 2차(2013~2017년)에서는 의무 대상국에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연히 국내 산업계도 비상벨이 울렸다.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에 따라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데다, 각종 환경규제가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하게 되면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에 걸려 공장 신증설도 제한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산업별 온실가스 저감(低減)의 잠재량 분석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 교토의정서 발효로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

을 중심으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체계는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 감축 압력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업종별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도체 · 자동차**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자발적 협약에 들어간 반도체와 자동차는 수출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생산현장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하이브리드카(기존의 차량에 비해 유해 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환경자동차) 개발과 연료전지차량 개발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불화탄소(PFC) 감축에 세계 정상급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폐열 재활용과 고효율 냉동기 도입 등 전력의 자발적 감축으로 전력 분야에서 매년 배출량의 4%를 감축하고 있다.

**정유 · 석유화학** |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급증과 에너지 저감비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업종이다. (주)SK 등 정유 5개사는 대책반을 구성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공동 대응책을 200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를 상용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실적에 대한 인증체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LG칼텍스정유도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강** | 업종 특성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포스코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과 조업방법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발전연료 대체 등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온 ‘넘어야 할 산’이 됐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침반과 같은 항도역할에 나서야 한다. 산업계도 생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파고(波高)를 넘는 지름길일 것이다.

글. 김동원 동아일보 기자



쓰레기 매립지 가스(Landfill gas)를 이용한 캐터필라 가스엔진발전기

# CATERPILLAR G3500 SERIES LFG 가스엔진

대부분의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주변 지역의 악취발생 등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립지 발생가스를 단순히 소각시키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유용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립가스의 에너지화다. 매립가스의 에너지화는 그만큼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원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매립가스를 연료로 이용한 캐터필라 가스엔진발전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 매립지 가스 발전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발전이란 쓰레기를 매립한 매립지에서 부패한 쓰레기가 유발하는 메탄가스(CH<sub>4</sub>)를 연료로 이용하여 가스엔진발전기를 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자원정책과 국민의 의식변화에 힘입은 쓰레기 재활용(Reuse & Recycle) 노력으로 인해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 과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은 결국 처리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쓰레기를 자원화한 매립지 가스 발전 시스템은 일종의 청정 개발 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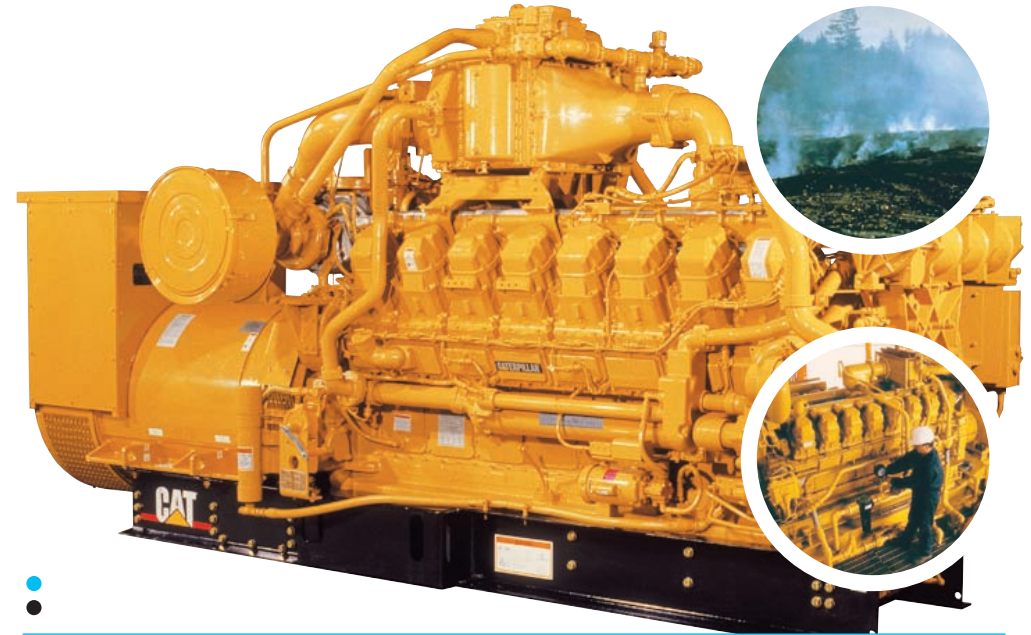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00년 말 기준, 총 306개소로 총 매립지 면적 3천만㎡, 총 매립용량 416백만㎡(수도권 매립장은 전체의 69%)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21백만㎡가 매립되어 있으며 향후 매립할 수 있는 잔여 매립량은 295백만㎡이다.

## 캐터필라 G3500 시리즈 가스엔진(300~1600KW)

매립 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여 자원화 하는 방법에는 가스엔진, 가스터빈, 증기터빈 등의 전력 생산 방법이 있으며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생산 등 방대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발전 효율과 경제적 운전을 위하여 가스엔진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캐터필라는 1980년 초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및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소화 가스(Digester gas)의 전용 가스엔진발전기를 개발하여 1983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500대 이상 총 용량 500MW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 시간만 총 3천만 시간 이상을 가동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어 운전 중인 G3516(Vee 16기통) 가스엔진은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전용 엔진으로 개발된 모델이다.

매립지 가스의 주요 성분은 메탄(Methane)이며 천연가스의 메탄 함유량이 80~85%인데 비해 매립지 가스의 경우 가스 내에 포함된 메탄 농도가 40~60%



정도로 캐터필라의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및 혐기성 음식물 소화 가스(Digester gas)용으로 적용 가능한 용량은 발전기 단일 출력300KW부터 1600KW의 출력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캐터필라 가스엔진은 희박연소방식(Lean Burn)으로 배출 가스를 최소화하였으며, 매립 가스의 낮은 저위발열량(LHV)에서도 출력의 안정성과 최적의 연료소모율을 실현 한다. 또한, 천연가스(Natural gas) 엔진 및 디젤엔진의 경우 엔진 냉각수의 최대 허용 온도가 99℃까지인 것에 반해, 캐터필라 매립지 가스용 가스엔진의 경우는 엔진 냉각수 허용 온도가 125℃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고온냉각 시스템(High Coolant Jacket Water System)은 윤활유 계통 또는 실린더 라이너 등 엔진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축수(Condensing water) 발생을 최소화 하는 역할을 한다.

캐터필라의 고온냉각 시스템을 적용한 엔진의 경우, 매립지 가스(Landfill gas) 및 혐기성 음식물 소화 가스 외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Coke gas,

blast furnace gas, producer gas 및 wood gas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주)헤인은 캐터필라 디젤발전기뿐만 아니라 매립지 가스 엔진발전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함은 물론 고객의 요구에 따른 발전기 유지보수 시스템을 제공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의지에 부응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수입대체효과 및 환경오염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글. 김일래 대리 발전에너지팀(irkim@heain.com)

G3516 LFG 발전기 사양

제조사	캐터필라
발전기 모델	G3516 LFG
발전 출력 및 회전수	Max. 925 ekW × 1200 rpm
사용 연료	매립지 가스, 혐기성 음식물 소화 가스, 하수처리 가스 등 Low energy gas
연료 소모율	10 MJ/bkWh-hr
외형 크기(L×W×H)	5,750 × 2,155 × 2,330 mm
중량(Dry weight)	11,850 kg





전시 예정인 Caterpillar 325CL 굴삭기

## (주)헤인 '2005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CONEX KOREA 2005)' 참가

(주)헤인은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주관으로 2005년 5월 25일~28일까지 실시되는 '2005 한국건설기계전 (Conex Korea 2005)'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일산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국내외 건설기계 관련 업체 약 200여 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관련 각종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주)헤인은 헤인에서 판매 중인 각종 건설기계를 전시하여 전시회 기간 중 헤인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헤인의 우수한 서비스 체계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주)헤인 전시 제품 List

- Caterpillar 305.5 굴삭기 / Caterpillar 325CL 굴삭기 / Caterpillar 735 협지용 굴절트럭
- Ingersoll-Rand Titan 326 아스팔트포니서
- MCF DP25 디젤 2.5톤 지게차 / MCF DP30 디젤 3톤 지게차
- Jungheirich EJC14 전동스태커 / Jungheirich AM2200 핸드파렛트
- Haulotte STAR10 고소작업대



## (주)헤인 45기 주주총회 개최

지난 3월 11일 오전, 올림픽공원 문화센터에서 제 45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47가지 안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회사가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상정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5기 재무제표의 승인의 건, 둘째, 이사 선임의 건, 셋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넷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원중희 전무이사의 중임과 류명선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이 결의되었고, 2004년 배당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차별적인 현금 배당이 결정되었다.

## 삼성 TESCO 물류 장비 수주

지난 2005년 1월 28일, (주)헤인 ALLIED 장비사업본부 5개월간의 노력 끝에 삼성 TESCO로부터 Jungheinrich 전동 파레트 트럭 등 약 12억 원의 물류장비 수주에 성공하였다. 이는 물류장비의 단일계약으로는 최대 수주 건이며, 이 수주를 계기로 ALLIED 장비사업본부의 매출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적극적인 New Accounts 개발을 통해 매출증대에도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 매립지 가스엔진 G3516 LFG 국내 첫선

(주)헤인은 지난 2월 5일 여수 만흥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LFG발전소에 캐터필라 G3516 Landfill 가스엔진(단일용량 925kW)을 공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시는 1997년 11월 매립지 5만1천5백여 평에 쓰레기 3백25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을 준공하여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이며, 에너지개발업체인 (주)한려에너지개발이 LFG발전소를 건설하고 매립지 가스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하여 가스엔진발전기를 가동, 지역 내 3천 500세대분의 전기를 공급함은 물론 엔진의 폐열을 지역 난방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매립지 주변의 냄새를 제거하는 한편, 국내 온실가스 배출감소(10년간 CO2기준 42만4천524톤)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국가 에너지정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헤인 동우회 소식

(주)헤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친목모임인 '헤인 동우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목) 영등포에 소재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20여 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 후에는 근처 찻집으로 장소를 옮겨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헤인에서의 지난 일을 회상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헤인 동우회에서는 아직 임



6 Sigma APD president's award competition 에서 참가자들

회하지 않은 지난날의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입회 및 회원들에 관한 문의사항 : 헤인 동우회 사무실 (02-2636-9407~8)

## NPI project 'BEST IN DISTRICT' 선정

2003년 8월부터 6 Sigma project로 추진한 '신장비 도입 Process 개선(NPI Process Improvement)'이 Caterpillar APD(Asia Pacific Division) 내에서 'BEST IN DISTRICT' Project로 선정되어 싱가포르에서 열린 6 Sigma APD President's Award Competition에 참가하였다.

Asia Pacific Division에 있는 27개 Dealer 중 최종 선정된 9 Dealer만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NPI Project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더불어 고객만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 헤인의 6 Sigma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NPI Project는 2005년 1월 종료되었으며, 금번 Project로 인하여 신장비 도입 후, (주) 헤인은 고객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rocess를 구축하게 되었다. (주)헤인은 6 Sigma 활동을 통하여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 독자 나눔터

2005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각종 모임과 매체를 통한 분위기 띄우기에 동참하며, 험레벌떡 2004년을 보내고 나니 그와 너무나 닮은 2005년이란 이름의 새해가 빛나고 있네요. 비록 닮은 모습이라도 결코 닮지 않는, 보다 나은 올 한해를 모두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올 12월에 만날 때에는 웃으며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432-37 8/6 김현아 님

일 년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겨울인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어렵다. 너무 춥게만 느껴진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2004년이었습니다.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주)헤인에 종사하는 여러분은 조금 어렵고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힘찬 기지개 켜시기 바랍니다. 헤인!!! 꿈과 미래가 있는 회사 파이팅!!!!!!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STX조선 (주)도장팀 천옥재 과장님

추운 겨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2005년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62-1 우성사로 사옥 5층 (주)마키 ENG 조규홍 님

오랜만에 받아보는 사보에 마음이 들뜩니다. 헤인 장비와 함께 2004년을 계획한 날이 어제 같은데 한해가 벌써 저물었습니다. 헤인 식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2005년은 경기가 더 어렵다는데 지혜롭게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 문창동 115-11 2층 (주)진보중기 최인완 님

헤인은 최고의 건설중장비만을 취급하는 업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위하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헤인도 최고의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헤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놀라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 삼성 아파트 2-905 조준희 님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02-3498-4524

## 승진을 축하합니다

광주지점	부장	안용호
임대영업팀	차장	최성욱
진주영업소	차장	김 구
포항영업소	차장	이상욱
서울영업본부	차장	백성락
Field 서비스팀	차장	김기진
전산팀	과장	이제훈
전산팀	과장	최기재
발전에너지팀	과장	김성학
발전에너지팀	과장	박동운
Field 서비스팀	과장	공정근
영동포영업소	과장	정승욱
남부영업소	과장	백정기
대전지점	과장	오경환
대전지점	과장	임한수
대전지점	과장	전인기
대구지점	과장	조인호
제천지점	과장	김한철
장비마케팅팀	대리	전상운
발전에너지팀	대리	안주현
부품마케팅팀	대리	방석원
Field 서비스팀	대리	최성규
Field 서비스팀	대리	이신주
부산영업본부	대리	박무원
부산영업본부	주임	봉강현

##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금융무역팀	2005.01.12	대리 박중익 (박지호)
-------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6 Sigma 팀	2005.01.02	과장 송선미
부산영업본부	2005.02.19	대리 박무원
부산영업본부	2005.02.27	주임 봉강현
기술지원팀	2005.03.12	대리 김덕영

# 건강에도 혈액형 열풍!

혈액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 '피'를 통해 나타나는 정보들이 그 어떤 것보다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라는데 100% 꼭 맞지 않는다고 해도, 설득력 있는 사실들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은가.

## 혈액형이 정답?

혈액형에 관련된 노래에서부터 영화, 차, 화법 등 혈액형 시장(?)이 뜨겁다. 고전적인 연애론에 단골로 등장하던 것부터 보자면 하루 이들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왜 유독 요즘일까? 혹자는 사람들이 쉽게 대화를 풀어가고 소속감을 얻기 위한 트렌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야 어찌되었든 그 논리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잘만 응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도 가능할 법하다.

흔히 혈액형을 통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체질은 물론 액운이나 직업, 나이가 인생을 점칠 수도 있다고 한다. 혈액형 건강학도 다름이 아니어서, 혈액형을 알면 체질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의 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을 가려 훨씬 건강한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체질을 기본 맥으로 잡는 한방처럼 서양에서는 이 혈액형을 오래전부터 건강에 활용해 왔다고 하니 설득력도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 몸에 좋고 나쁜 것을 미리 가려 응용한다면 건강이든 삶이든 나아지는 것은 자명한 일일 터다.

## A부터 AB까지, 건강 길라잡이

혈액형은 기본적으로 A, B, O, AB형으로 나뉜다. 이 혈액형들은 독특한 자기만의 성격을 갖는데, 개개인의 건강도 이 성격과 관련이 깊다.

우선 감정이 깊고, 성실하며 완벽주의형인 A형을 보자.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에 약하고 강박신경증에 걸리기 쉽다. 자연히 소화가 될 리 없다. 신장질환이나 위, 장 계통이 약하다.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의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소화가 잘 안되면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콩, 채소를 많이 먹는다.

동글동글한 성격에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O형은 어떤가. 심장병이나 파킨슨씨병, 각종 궤양과 알레르기, 피부암 등에 약하다. 천천히 먹되 살코기를 조금씩 자주 먹고 생선, 과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단 유제품이나 산성 과일은 체질상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주의. 일주일에 3회 정도의 운동도 도움이 된다.

반면 손재주가 많고, 규칙이나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B형은 잡식성. 생활 태도도 가장 반듯한 편이어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다. 다만 만성피로나 비만,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주의해야 한다. 잡식성이어서 소화력이 약한 편이므로, 갑각류나 닭고기, 옥수수 등은 피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거나 우유부단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쉽게 몰입하는 AB형은 암이나 담석증, 신장, 심장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야외활동을 충분히 하고, 커피나 담배, 알코올류를 피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생선, 해조류, 유가공품 등이 이롭다.

음식에 궁합이 있듯 굳이 혈액형이 아니어도 사람은 저마다에게 맞는 식생활이 있다. 혈액형은 다만 그 일부일 뿐이지 100%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혈액형이든 규칙적인 식생활과 바른 습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만고불변의 건강법이 아니던가. 꼭 모범답안이라는 편견은 버리자.

글. 임정미 자유기고가





이 한 권의 책

## 스펜서 존슨의 <선물>

멋진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림을 그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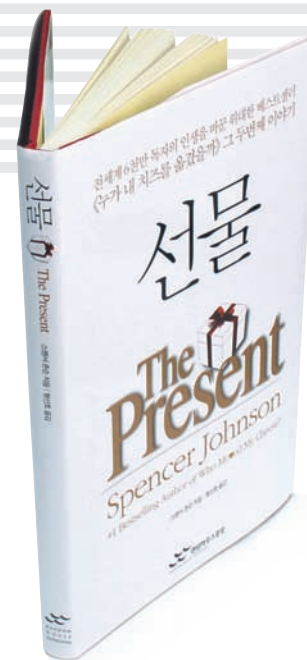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하라.

계획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겨라.

화제의 베스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두 번째 이야기로 출간 되자마자 화제를 모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선물을 찾으며 매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소년은 위대한 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노인의 답은 한결같이 "그 선물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점점 자라고 마침내 선물을 찾아낸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과 일상에서 얻는 자잘한 행복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우화를 통한 이야기들이 잔잔한 깨달음을 준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 지금이 소중한 때다. 시작하는 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달려있다.

스펜서 존슨 저, 중앙M&B 펴냄



2 0 0 5

S P R I N G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

□ □ □ - □ □ □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애 독 자 카 드

●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에 맞게 재배열해 보세요. 아래에 있는 빈 칸에 순서를 올바르게 배열하여 적어 주세요.

4		



● 독자나눔터의 실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1 3 7 - 1 3 0